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09월 24일

<時評>

東南亞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하다

박철희/서울대 교수, 일본연구소장

추석 연휴 기간에 동남아(東南亞)를 여행하면서 지인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전 3시간 동안에만 태국에서 귀국하는 항공편이 9편이나 되는 걸 보면서,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지식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와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남북한으로 분단돼 긴장상태의 한반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는 동북아와 비교한다면, 동남아는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돼 보였다. 하지만 동남아에서도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새롭게 맞이할까 하는 외교적 각축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전부터 지역 강대국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갈등 회피를 위해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 방식을 받아들여 왔다. 지금도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작은 국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강국들에 휘둘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은 중국의 힘 강화와 동남아에 대한 매력 공세가 기회와 도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 대륙국가 삼형제’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국에 우호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튀어나왔다. 아직 개발도상국들이고 작은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얀마가 최근 중국의 많은 요구에 대해 레버리지(leverage)를 가지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을 끌어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기울어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 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친중적(親中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반면, 동남아의 해양국가군인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공세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중국과 대결 노선을 취한 국가로 분류했지만, 동시에 동남아 국가 지식인들은 필리핀의 대중(對中) 대결 노선이 비현실적이며 비생산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싱가포르와 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현실적인 균형정책을 취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이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교류 및 개발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다만 중국의 지나친 지역 관여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 역내 다자주의 강화 및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생존 전략임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도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외교적 공생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중국이 동남아를 지배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다른 성격을 간과하고 역내 국가들의 분단책(divide and rule)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된 인식이었다. 중국 쿤밍(昆明)에서 미얀마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라오스를 거쳐 방콕에 이르는 철도와 고속도로, 베트남을 통해 남중국해에 이르는 교통로는 동남아를 유혹하는 3개의 접근로였다. 향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결속과 연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동남아 제국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원칙만 공유할 뿐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면 잃을 것이 많을 것이고 이미지가 추락해 동남아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설(逆說)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든 국가가 믿고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책임 있는 대국이 되기 위해 동남아의 게임 규칙인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어느 곳을 가든 동남아 지식인들은 한국이 동남아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 동남아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는 데다, 한류(韓流)의 전파 등으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경제 개발과 민주화라는 경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다. 강한 국가로 경계심을 일으키는 중국, 역사 인식 등으로 위화감을 주는 일본보다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에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이들의 이야기에 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한국이 동북아에만 갇혀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